

# 탐진치 삼독 버리면 우리 모두 한생명

## 법등 밝혀 공생화합시대 열자



고 산

조계종 총무원장

兜率王宮同一土 無來而來本眞性  
 兜率왕궁동일토 무래이래본진성  
 爲度衆生現世間 無說而說皆成佛  
 위도중생현세간 무설이설계성불  
 도솔천과 정반왕궁은 차별없는 하나의 국토요, 몸이 없이 오는 것이 본래의 참된 성품입니다. 부처님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사바세계에 몸을 나누시어 설함이 없는 설법으로 모든 중생을 해탈케 하셨습니다. 나와 남이 따로 없고, 천지와 더불어 우리 모두 하나의 생명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탐욕과 분노가 얼마나 부질없는 망상인가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만들어진 세상은 탐, 진, 치 삼독이 들끓는 세계였습니다. 지금도 발간반도에서는 전쟁의 포화가 인간의 생존을 파괴하고 있고,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는 종교분쟁 또한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이 지구상의 모든 전쟁과 분쟁이 종식되기를 기원합니다.

## 불행한 이웃에 자비와 지혜를



덕 암

태고종 종정

지난 해부터 몰아닥친 IMF체제의 경제적 위기가 좀 풀렸지만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기업체의 도산과 실업률도 계속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정치계의 혼란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회는 사회대로 온갖 부정과 비리가 만연하고 인륜과 도덕성마저 타락할대로 타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삶 그 자체가 고통이며 두려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에게 자비와 지혜의 광명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자비와 지혜로써 우리를 모든 고통으로부터 제거해 주시고 자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서로가 자비와 지혜를 베풀고 나눌 줄을 알아야 합니다. 기업을 잃고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에게, 가진 것 없어 애태우는 사람에게, 돈이 없어 병을 고치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이처럼 우리 주위에서 고통받는 모든 불행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위로와 자비를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지혜를 나눌 수가 있어야 합니다.

## 자애 샘솟는 인간사회 이뤄야



도 용

천태종 종정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온 누리를 환하게 비추는 태양의 밝은 광명과 같이 지혜의 광명으로 미암(迷暗)의 중생계를 사무쳐 밝게 비추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중생계는 오직 5욕 탐심을 근본으로 하여 그것의 종족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와 원한을 일으키어 서로 싸우고 해치고 죽이고 하는 온갖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기가 본래 지니고 있는 밝은 마음을 등지고 마침내는 삼악도에 떨어지고 욕도를 들고 돌며 사고고해를 해매게 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사는 참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극단과 극단으로 흐르지 말고, 대립과 갈등, 쟁투를 지양하여 중도(中道)와 화합 정신으로 생활할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바르게 생각하고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을 하며 바른 직업을 갖고 옹고 바르게 사는 올바른 생활이 불법에 있습니다. 이 기적 사육을 버리고 공리공복을 위해 살도록 합시다.

## 나눔 실천 더불어 사는 삶 확대



각 해

진각종 총인

부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출현하신 것은 부처와 우리가 풀이 아니고 하나라는 동체대비 사상을 몸소 실현하고자 하심이며 또한 우리 중생의 괴로움을 덜어주고 해라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항상 우리에게 자비와 자비의 정신을 강조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귀명해야 할 영원한 진리의 세계입니다. 우리들은 무시 광대검으로부터 공생공업(共業)의 인연을 맺고 살아온 서로에게 은혜로운 존재입니다. 일체는 인연의 화합으로 생기고 소멸하는 것이기에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나눔으로써 공업의 은혜를 감을 수 있으며, 비워야만 다시 채울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쳐 알아야 합니다. 하나의 연등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광명을 이 세상에 구체적으로 실현하여 동업중생 모두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함께 하여, 더불어 살아가 수 있는 마음이 확산되어야 하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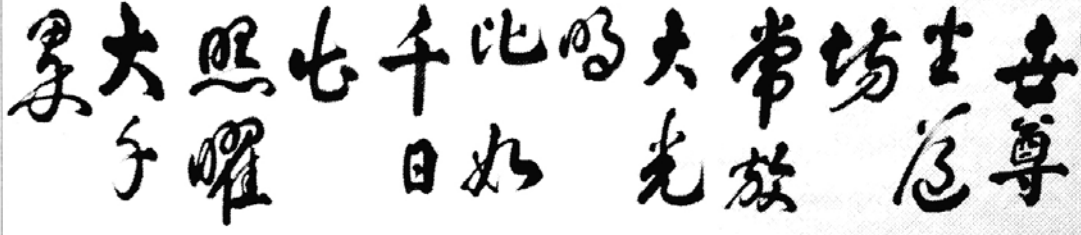
## 자비와 믿음의 환희등불 켜자



홍 파

관음종 종정대행

부처님은 진리의 몸으로 사바세계에 오셔서 인류의 등불로서 광명을 밝혀 주시고 계십니다. <법화경>에 내가 이 세상에 온 까닭은 중생들로 하여금 깨달음의 지경을 열어 청정하게 하고 그 법성지경을 보고 깨달아서 나와 같이 인륜한 생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바세계에 오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큰 믿음을 심지로 하여 환희의 등불을 밝히십시오.



송월스님 봉축휘호

世尊坐道場 常放大光明(세존좌도랑 상방대광명)

比如千日出 照曜大千界(비여천일출 조요대천계)

세존 부처님께서 도랑에 앉으셔서 항상 큰 광명을 나누시니 비유컨대 천개의 태양이 나온 것과 같아서 삼천대천세계에 비추었다더라.

## 모든 생명 내몸같이 사랑해야



일 화

법륜종 종정

하늘위와 하늘아래 오직 내가 홀로 높다고 외침으로써 참다운 우주의 주인과 창조자로서의 인간의 자존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분은 평등사상과 모든 생명을 내몸같이 사랑하라는 자비의 실천행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각 가정마다 직장마다 진리의 등불, 소망의 등불을 켜서 고해 중생들의 마음을 밝은 광명의 빛으로 장엄하십시오.

## 고통의 삶 극복 불보살의 길로



녹 정

총지종 종정

부처님 오신날. 우리는 이 날을 맞이하여 그 분의 탄생을, 그 분의 깨달음의 의미를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결코 즐거움이나 미소로써 깨달으신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고뇌와 번민을 통하여 깨달으신 것입니다. 이 힘든 시대 이 고마운 고통들이 대처하기에 따라 우리들을 불보살의 길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 너와 내가 따로 없어



대 산

삼륜종 종정

세상의 모든 이들이 아귀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벼랑끝에 선 사람들의 절규가 우리 모두를 슬프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살아 숨쉬는 희망의 새 날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모두가 모두에게 기쁨과 행복과 희망을 나누어 줍시다. 너와 내가 따로 없고 동서가 따로 없으며 남과 북이 서로 달라하지 않는 그런 부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 모두가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밝은 사회 복된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 온 세계를 밝히도다



동 광

총회종 종정

世尊爲出現 常放大光明  
 세존위출현 상방대광명  
 比如千日出 照曜大千界  
 비여천일출 조요대천계  
 비여천일출 조요대천계  
 우리 세존이신 부처님이 강세 하니 온 세계가 밝아온다. 태양이 떠오르는 것과 같이 온 세계를 밝히도다.  
 空山足春雨 綠柳開丹杏  
 공산족춘우 비도개단형  
 花發不逢人 自照溪中影  
 화발불봉인 자조계중영  
 빈 산에 흥백 봄비가 내리고, 붉은아꽃 살구꽃 울긋불긋 피었네. 산중이라 꽃피어도 보지는 없어 저 혼자 시냇물에 그림자 드리웠네

## 차별없는 자비등 밝히자



금 파

대한법화종 종정

국민 여러분, 그리고 불자님, IMF 극복에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루속히 국난이 극복되고 남북통일이 되기를 부처님 전에 기원합니다. 本無自他全一體(본무자타전일체)/起惡心兩分斷(기우치심양분단)/無差慈燈照天高(무차자등조천고)/平和統一還歸本(평화통일환귀본) 본래는 떠나없이 한몸인데 /어리석은 마음이 두갈래로 만들었네 /차별없는 자비의 등불 높이 비추어/평화통일 이루어 본체로 돌아가세.

## 미망 제도 마음의 평안 얻자



혜 안

보문종 종정

인연의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나누시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하시며 '삼계의 미망속에 허덕이는 중생들을 모두 제도하여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고 하신 일성이 2,50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렁찬 법음으로 온 우주에 울려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이 여기 있기에 모든 불자들은 이 뜻을 가슴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 남북통일·인류화해 발원



윤 파

조동종 종정

고해 화택의 입야에 허덕이는 미망 중생 구원하고자 도솔에서 룬비니로 강탄하신 싯달타 태자 귀한 몸 7보 걸으며 설하노니 내가 암야에 등불 켜리라 기원하노니 남북평화 통일에 7천만은 하나로 통치고 세계인류는 화해하여 영원한 평화의 사랑으로 지상의 정토 살기좋은 낙원을 건설하여 지이다.

## 부처님 가르침 하나씩 실천



혜 곡

열반종 종정

천만 불자들은 오늘을 봉축하고 부처님을 찬탄하면서 자신에게 얼마나 충신했는가를 되돌아 보아야 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어리석음과 화를 내는 3독을 불태워 열반에 이르려는 산고의 아픔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해마다 부처님 오신날을 축하하는 날로만 보내기보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작은 것 한가 지킴으로도 실천하는 날이 되도록 합시다.

국내 최초 단행본 출간!

부처님은 전생에 청개구리였다!

# 부처님 전생이야기

서희건 역음  
(문화계 전문위원)

2500여년 전에 씌어진 우화처럼 재미있고 눈물겨운 부처님 전생의 보물창고 자타카!

부처님의 전생은 기구하기 짝이 없다. 까마귀, 거북이, 꼬끼리에서부터 아이 낳는 여자, 도둑으로도 태어났었다. 한마디로 이 책은 부처가 되기 전 보살로 살았던 전생 이야기인 것이다. 이들 설화는 동화처럼 아주 재미있기도 눈물나기도 한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우화나 아라비안나이트, 우리나라 삼국사기에까지 영향을 주었다. (전2권 1권 275쪽 2,500원)

## 박삼중 스님의 인연 이야기

처음으로 고백한 삼중 스님의 진솔한 라이프 스토리!

세 명의 의붓아버지를 둔 기막힌 팔자 이야기부터, 출가·환속·출가에 얽힌 숨기고 싶었던 여자 이야기, 그리고 사형수의 대부가 되기까지 처음으로 공개한 자전 에세이!

서대문 구치소담 뒤에서 태어난 삼중 스님! 첫돌날 부처님을 모독하고 세상을 등진 젊은 아버지, 형무소에 수감된 또 다른 남자를 시종들기 위해 여교도관이 된 어머니! 그 어머니의 거둔된 재혼으로 세 명의 의붓아버지 곁에서 눈짓받던 소년 시절. 그리고 맨발의 출가와 환속으로 이어진 구도의 길에 만난 여인들과의 애뜻한 사랑과 이별. 계소자 교화에 나선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 큰손 장영자, 강신명 목사, 최 소피아 수녀 등과의 만남에서부터 보통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 너무나도 길진 인연 이야기들!

(제1권) 다시 태어난 스님 연필체 | (제2권) 그 만남이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했네  
 (전2권 신국문 | 1권 275쪽 2,500원)

문학수첩 전화: (02) 790-5999 팩스: 790-6656  
<http://www.moonhak.co.kr> \*이 책의 수익금(인세)은 재소자를 위해 쓰여집니다

